

문화여건 개선에도 지역 격차 여전...광주 중위권·전남 하위권

문체부 ‘2023 지역문화실태조사’
도시·도농복합·농촌 순 문화 격차
광주 동구·북구 상위, 서구는 중위
전남, 고흥·신안·완도 등 하위에

전국적으로 지역 문화 사업이 다양해지고 관련 인력도 증가하는 등 문화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전남의 문화지수는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고 광주는 중위권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3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결과와 ‘지역문화지수 순위’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역문화지수는 문화 접근성, 생활문화시설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중위 40%, 전남은 하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가 대구·세종보다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주에서 동구와 북구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반면, 광산구와 서구는 중위 40%, 남구는 하위 30%에 머물렀다. 전남에서는 목포시·순천시·여수시가 상위 30%에 포함됐고, 강진군·곡성군·광양시 등은 중위 40%, 고흥군·신안군·완도군 등은 하위 30%로 조사됐다.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문화수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조사 결과와도 비슷한 추세다.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문화사업 건수와 지역문화인력 수 등 2020년 조사와 비교가능한 18개 지표 중 13개 항목에서 지역의

문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지원 비율은 광역단체의 경우 66.4%로, 2020년 대비 10.2%p 늘었다. 기초단체는 59.0%로 2.9%p 증가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도 증가했다. 광역단체는 17% 증가한 평균 5.5건, 기초단체는 100% 증가한 5.6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지역문화예술단체 수, 문예회관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등 인력과 조직 관련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 예산 비율은 감소했다. 광역단체는 전체 예산 대비 문화 예산 비율이 1.75%로 0.32%p 줄었고, 기초단체는 1.93%로 0.15%p 하락했다.

도시, 도농복합, 농촌 순으로 문화 여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문화시설 접근성 격차가 두드러졌다. 기초단체 기준으로 시·군·구 중심점에서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문화예술시설까지 걸리는 시간(차량 기준)을 살펴보면 시는 12.5분, 군은 22.1분, 구는 5.5분이 소요됐다.

지역별 문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역문화지수’ 순위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문화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의 4대 분류별 36개 세부 지표를 적용해 분석이 진행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근린공원 등 23곳서 ‘참진드기’ 발견

5월 발생 최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수칙 당부

광주시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SFTS는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난다. 심각한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질 수 있는 감염병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주지역 근린공원, 등산로, 파크골프장 등 총 41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23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한 마리 이상이 확인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참진드기가 발견된 곳은 일부 공원 주변의 야산과 연결된 초지, 잡목림, 등산로 등이다. 채집된 참진드기 모두에서 SFTS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SFTS 환자의 감염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논·밭 작업과 성묘·벌초 등 제조작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참진드기에 물리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이 중 5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진드기에 물린 경우 깨끗하고 끝이 미세한 핀셋으로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피부와 최대한 가깝게 잡은 후 일정한 압력을 줘 피부와 직각으로 천천히 빼내고 손과 물린 부위를 비누나 알코올을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라고 광주시는 당부했다. 진드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밝은색 긴소매 옷·모자·목수건·양말·장갑 등)을 입어야 한다.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않아야 한다.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하고 샤워 시 몸에 벌레 물린 상처나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지난 15일 남원에서 올해 국내 첫 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건진법사 의혹 ‘尹 사저’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장사산범죄합수부는 지난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40분경 종료됐다.

압수수색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실패했지만, 사저는 경호구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직 인사인 전 세계본부장 윤 모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현금다발을 보낸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국제선 운수권 제한

국토부, ‘항공 안전 혁신안’ 발표

앞으로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일부 국제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공항에서는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항공기와 새의 충돌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중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사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병원, 뉴 스마트병원 건립 박차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스마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업비 50% 이상의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 현행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기준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25%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남대병원 새병원은 전체 예산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7221억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전남대병원은 자부담 비중을 줄이기 위해 새병원에 진료 외에도 교육·연구시설 비용을 더 늘려 국고지원을 최대 50% 이상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전 직원의 열정과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남대병원이 새병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국내의료를 선도하는 지역거점병원이자, 호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병원 건립사업 책임을 맡은 주재균 새병원추진본부장(항문외과 교수)은 “새병원 건립까지는 국비 확대를 비롯해 병원 설계사업의 큰 과제들이 남아있다. 여타 통과의 여세를 몰아 전직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난관을 극복해가며 새병원 건립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사 인사

▲ 박순규 : 동부채본부 곡성주재 차장 (5월 1일자)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심기송(640204-1XXXXXX)
- 최후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평로 3526
- 피상속인 망 심기송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5노단354호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5월 1일

- 상속인 : 심기현(570817-1XXXXXX)
광주 북구 양산택지소로 55, 501호 (본촌동)
- 신고기간 : 2025. 5. 1. ~ 2025. 7. 11.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심기현의 주소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동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정화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신안군-공고 제2025-273호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2차)

신안군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중인 「혹산도 추모관 신축공사」면인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구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 소재지 및 가주			
소재지	지번	분묘구수	비고
전남 신안군 흑산면	81 전	10	

2.개장사유
: 흑산도 추모관 신축공사 편입에 따른개장 (이장)

3.개장방법
가. 유염분묘: 연구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도가자가 임의 개장

4.개장 후 안전 장소 및 기간
가.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자연 매장
나. 납골장소 : 목포시 대양동 764-9번지 목포추모관 휴
다. 매장장소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81번지 전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유언분묘 개장신고
가. 신고처 : 신안군 흑산면사무소 (북지행정팀 / 061-240-3790)
나. 제출서류 : 연구자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
다. 개장(이장)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기획예산과(061-240-86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신안군수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	------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금,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